



보도시점

2026. 6. 4.(목) 15:00

6. 5.(금) 조간

배포

2026. 6. 4.(목) 09:00

국내 양파 공급 과잉 물량 일부를 대만 등으로 수출하여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

- 6월 4일, 경남 함양농협에서 '26년산 국내산 햏양파 수출 선적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6월 4일(목) 오후, 경남 함양농협에서 국내산 햏양파 초도물량 100톤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26년산 햏양파 대만 첫 수출 선적식 행사(13:30~14:30, 경남 함양농협 산지유통센터)

농식품부는 이번 선적식을 시작으로 정부 2천톤, 농협 8천톤 등 총 10천톤 수준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수요 및 국내 생산량 등에 따라 수출 지원 물량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양파 수출실적은 연산 기준 '24년산 58톤, '25년산 467톤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국내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이 평년 대비 41천톤 증가한 1,088천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 물량 중 일부를 수출하여 공급 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공급량 증가 및 최근 소비 부진에 대응하여, 공급 과잉 예상 물량 이상 시장격리 하는 등의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고품질 양파 해외시장 확보 및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 햏양파 수출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수출 확대와 수매비축,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양파 수급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장성두 (044-201-2236)